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2. 위산의 수고우

위산 영우(爲山靈祐, 771~853)는 백장의 큰 제자이다. 중국적인 선을 창출한 육조 혜능의 문오사상이 마조 도일에 이르러 융성해지고, 또 회해의 <백장청규>에 의해 선원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수백 수천을 헤이리는 운수잡자들이 한 분의 큰 스승 회상에 모여 여법하게 수행하는 새로운 기풍이 전국 방방곡곡에 확산된다. 총림제도를 최초로 형성한 선문이 영우와 그의 제자 혜적이다. 위양종이 선종 5가 7종 가운데 가장 먼저 꽃을 피우게 된다. 위양종이란 말은 위산 영우와 제자 양산 혜적(仰山慧寂, 807~883)의 첫 자를 따서 만들어진 종파란 뜻이다. 그러나 위양종은 5대에 150년경과 후 송나라에 이르러 선문이 끊긴다.

에 '위산의 중, 아무개'라 쓰겠다. 그때 만일 위산이라 하면 암소를 여찌하며, 암소라 하면 내 이름은 여찌 하겠는가?"

양산이 나서서 절을 하고 물러갔다.<전등록>권9 '위산우' )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보는 삼세설이 있다. 위산은 대 도량의 방장이지

다. 앞 선화에서 위산이 '내가 죽은 뒤엔 산 밑 마을에서 한 마리의 검은 암소가 된다' 함은 이류중행(異類中行)이다. 즉 축생, 인간과 다른 종류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위산이 소가 되었을 때 '소냐? 위산이냐?'를 이르라는 공안이니 이류와의 차별도 역시 무차별이어서 찾을 수 없음을 말한다. 이 아담답고 현묘한 '수고우' 공안에 뜻을 밝힌 후 세 한 선장의 눈 푸른 계승이 있다.

산 위에선 산승이요 산 아래 암소라 (山上山僧山下牛)

털 나고 뿔 달린 무리와 뒤섞였네 (披毛戴角混同流)

온 세상이 부처가 되고 조사 되려는데

내가 죽은 뒤 산 아래마을 검은 암소되면 그때 나는 위산인가 암소인가?

"삼세를 자유롭게 관통하는 이타교화"

위산에 속세의 인연이 다 됨을 짐작한 위산은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한다.

위산이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엔 산 밑 마을에 가서 한 마리의 검은 암소가 되어 왼쪽 겨드랑 밑

만, 미래세에는 위산 아래 검은(水) 암소(?)가 된다. 위산은 암소이면서 위산이고, 암소는 위산이면서 암소이다. 위산승이라 부르자니 현재는 검은 암소의 모습이 고 암소라 부르자니 일찍이 위산승이었

(普天咸佛與成祖) 위산만 홀로 검은 소 되었네 (獨有馮山作水牛)

- 불국백 <선공염승>제9권 375칙

위의 계승, 1행과 2행에서 '털 나고 뿔 달린'이라 함은 이류(異類)를 말한다. 즉 인간이 아닌 다른 종류이다. 영우는 위산에 있을 때는 위산 승이고, 산 아래 있을 때는 검은 암소이다. 위산은 털 나고 뿔 달린 모습으로 동류(同類)인 수선잡자들의 눈과 귀를 혼란시키는데, 실제로는 오랜 관습과 고정된 사유를 벗기고 삼세(三世)를 자유롭게 관통케 하여 이항대립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3행과 4행은 누구나 성불작조(成佛作祖)함이 목표인데 위산만은 '성자되려는 마음마저 무너져, 이류인, 소가 되어 삶의 현장으로 입전수수(入塵垂手)하기를 원하였다. 이것은 육도(六度)의 행으로 저자거리로 돌아와 중생제도, 곧 이타교화(利他教化) 함을 의미한다. 아니 위산이 지금이 자리에서 말하는 이류중행의 범문, 역시 동류의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입전수수의 가르침으로, 몰록 자성본원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이런 사유는 불경 도처를 관통하는 무주(無住)·무상(無相)·무아(無我) 사상의 형상화이다. 곧 위산의 드높은 불이(不二)의 정신세계를 찬탄한 계승이다.

열반의 공간, '수고우' 선화를 우리에게 던져놓고, 위산은 총림을 이끈 지 40여년 좌탈임망한다. 그의 선택을 이은 제자가 43인, 상족으로는 양산 혜적, 함입 지한, 영은 지근 등이 있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신촌 대표

② 세 가지 쌈밥

쌈밥은 원래 사찰에서는 주먹밥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전 사찰에서 스님들이 길을 떠나거나 울력이나 농사일을 할 때 주먹밥을 싸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특히 산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대중 스님들이 모두 산에 올라가면 공양간에서는 이 주먹밥을 만들어 지게로

오늘 만들어볼 쌈밥은 냉이와 머위, 속을 이용한 것입니다. 냉이는 춘곤증에 특히 좋은 나물인데, 독특한 향이 달아난 입맛을 되살려줍니다. 또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 B1이 불나물 중 가장 풍부합니다.(100g당 0.18mg) 속

냉이는 입맛 되살리는데 최고

속, 미네랄 풍부 부인병에 효과

머위는 뽕은맛 독특한 쓴맛 나

때, 피부병이 났을 때 속뜸 등으로 활용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A와 B1, B2, 철분, 칼슘,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 부인병에 효과가 좋습니다. 머위는 감기나 기침, 황달, 현기증 등에 효과가 있으며, 폐농류가 많이 함유되어 독특한 쓴맛과 뽕은맛이 나 입맛을 돋워줍니다. 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나물을 이용해 다양한 주먹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가지 쌈밥의 재료: 속, 머위 잎, 냉이(위로부터 시계 방향).

- 세 가지 쌈밥 재료: 냉이, 머위 잎, 속, 쌀, 된장, 간장, 참기름, 깨소금, 무, 식초, 간장, 고추장, 밀가루, 메밀가루, 설탕, 겨자
- 1. 냉이와 속은 데쳐 송송 썰어놓고 머위 잎은 데쳐둔다. 밥은 고슬고슬하게 짓는다.
- 2. 냉이와 속을 따로따로 담아 간장과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비벼둔다.
- 3. 밀가루와 메밀가루를 따로 반죽해 전병을 부친 후 ②의 재료를 한 손가락 정도 넣어 말아 둔다. 이때 냉이 비빔은 메밀전병에, 속은 밀전병에 썬다.
- 3. 밥은 된장과 깨소금으로 간을 해서 비린 후 참기름에 무친 머위 잎을 펼쳐 한 손가락 정도 넣어 썬다. 머위 줄기를 한두 바퀴 돌려 묶어 준다.
- 4. 고추장, 식초, 설탕을 넣어 초고추장을 만든다.
- 5. 무는 강판에 갈아 간장과 식초, 겨자, 설탕을 넣고 무겨자장을 만든다. 쌈밥에 따라 두 가지 정을 곁들여 낸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임효림은 시를 쓰는 승려 시인이다. 그는 2005년 전태일문학상 특별상 수상식에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사상"이라는 발언을 한 민중의 벗이다. 종단개혁과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이래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개혁승이자 운동권 스님이다.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다"는 만해의 신조를 화두로 가지고 사는 진보적 자유사상 실천 승려이다.

그는 1968년 18세에 출가하여 운수 남자로 수행을 하다가 1987년 6월 민중항쟁을 기점으로 재야시민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다 백담사 조오현 스님을 만나 시를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문예지인 <유심>지로 등단하였다. <유심>은 1918년 만해가 창간해 3호까지 나오다 만 월간 교양잡이

였는데, 이를 만해실천사상선양회에 서 복간하여 현재 문인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 문예지가 되어있다. 2006년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재정 마련 전시회가 경복궁 근처에 있어서 갔었는데, 다음과 같은 스님의 글씨가 걸려 있었다.

확고한 민중사랑의 정신, 양극화 비판

뻘뻘하게 일하지만 세기 밥을 걱정한다

간단명료한 2행의 시다. 현재 한국 전체 노동자의 비극적 노동현실을 일갈하고 있다. 정말 뻘뻘하게 일을 하면서도 밥을 걱정해야 하는 대부분 노동자들의 현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은 인간다운 삶을 실

꽃향기에 취하여

효림 스님 | 바보새

현하기 위한 즐거운 노동이 아니라 먹고살기 위하여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 뻘뻘치는 노동인 것이다. 국가복지가 취약하여 국민 기초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가 노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부분 노동자는 이렇게 뻘뻘하게 일해도 겨우겨우 생계를 때우거나 걱정할 뿐이다. 2007년 2월 초 프랑스의 세

계석학 자크 아탈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마디 했다. 빈곤층이 선진국보다 높은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부유층의 세금을 더욱 높여 사회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확고한 민중 사랑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스님은 현재 한국 사회를 양극화로 치닫게 하는 빈부차이가 계속되면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안된다 안된다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된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져서 둘 사이의 점점 더 멀어져서 더 이상 같은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

- '이웃' 부분

헬스케어 전문가과정 수강생 모집
인체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치유능력을 키우고, 전통침술을 통해 평생건강요법으로 자신의 건강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교육일정: 평생건강요법 전문가과정(3개월 과정)
학습내용: 생활건강 침(전통침), 피부미용 침, 경락 및 경혈 카이로프랙틱(교정), 스포츠마사지, 자발공(氣) 및 요가
강의 특징 및 특전: 이론과 풍부한 실습을 통하여 지도자로서 역량을 키움 문화센터 및 지역문화사에서 강사활동 가능 대기업, 중소기업기관, 단체 연수 강사 활동 가능 국내봉사 및 해외봉사 가능 TAWA 전문가 과정 수료증(Traditional Acupuncture Welfare Association)
개강일: 2007년 3월 5일(월)
교육일정: 매주 2회 2시간수업(월, 화요일) 오후 1시~3시
인원: 20명 이상
교육문의: 02)706-9414
전통침구복지학회 | 코리아헬스케어아카데미

전통따주기지지도사 강좌 (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듯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병 예방 및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지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뻘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 (원장직강<공학박사 : 교수>)
6. 강 좌 일:
- 2007년 3월 2일 (금) ~ 3월 4일(일) 2박 3일
7. 특전:
-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비법교재 및 사할기보시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리리 구구초등학교내)
\* 문의서 케부강좌 프로그램 보내드립니다.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